

# 국내증시 약세 속 게임 파동까지... '인버스 ETF' 수익률 ↑

KOSEF 200선물인버스2X 등  
최근 한 달간 10% 가량 올라

레버리지 ETF는 투자릿수 하락률  
정치적 리스크 반영에 변동성 지속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서도 약세를 지속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에 더해 게임 파동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버스 ETF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KOSEF 200선물인버스2X', 'TIGER 200선물인버스2X', 'PL US 200선물인버스2X', 'KOSEF 200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인버스ETF' 이미지.

선물인버스2X' 등은 최근 한 달간 10% 가량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 등으로 울

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이달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승장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들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23%),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22%), 'ACE 레버리지'(-10%), 'KODEX 레버리지'(-10%) 등이 투자릿수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비상게임 선포 및 해체 여파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저가 매수를 노리고 레버리지 ETF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코스콤ETF체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KODEX 레버리지' ETF에 806억원을,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에 394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 (266억원)과 'TIGER 200' (179억원) ETF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00년 IT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6개월 동안 하락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증시의 조정 흐름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둔화와 미·중 분쟁, 그리고 '탄핵 정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코스피는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이번 사태로 신용평가사 한국 전망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금감원-증권사, 유동성·환율 등 리스크 대응

국내 증권사 36개 CEO 등 한자리에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 최적화해야  
내부통제·인센티브 구조 원점 점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 시장 전반으로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36개 최고경영자(CEO) 등과 증권사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5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6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사가 경각심을 갖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긴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모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함 부원장은 CEO 책임 아래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사례를 들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보수 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하도록 유도했다"며 "업무별 목적에 부합한 인센티브 구조가 설계돼 있는지와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CEO가 직접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함 부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보수 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유도했다"며 "상급자의 수직적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감사 부서의 수평적 내부통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전혀 통제·관리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금감원은 ETF LP 업무 과정에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금융 사고를 헤지 업무 부서에서 PI 부서와 동일한 성과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 거래가 발생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단순 헤지 업무 부서에서 고위투자(PI) 부서와 동일한 성과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 거래가 발생했다"며 "CEO 책임하에 부서별 연의 성과 보수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공개매수 등 주관 업무 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공모가격 부풀리기,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 등도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가 IPO 주관 업무 수행시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발행회사 또는 증권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선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증권사 CEO들은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겠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전사적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증권 '기업 재무 세미나' 성료

삼성증권은 국내의 주요 상장·비상장기업의 재무담당자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재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을 앞두고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의 '2025년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과 김은기 수석연구원, 박주환 채권상품팀장의 '2025년 글로벌 경제 및 채권시장 전망'·법인 자금의 채권운용전략,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자본시장 제도 변화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약 190개 법인, 200여명의 법인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증권

## 예탁원 "디지털 혁신 선두주자 될 것"

창립 50주년 콘퍼런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예탁결제 업무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예탁결제원은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의 선두 주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금융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행사 식순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코스콤·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예탁원이 자본시장의 견고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로 성장했다"며 "국회 또한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한국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

되기 위한 예탁원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예탁원 간의 협력 관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시장 참가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피터 스나이더스 유로클리어뱅크 CEO는 "세계적으로도 50주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CSD는 많지 않다"며 "예탁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처음으로 국제통합계좌를 열었던 것과 같이 향후에도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앨버트 박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의 확산과 금융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틸 메데우 국제예탁기구 의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후 브라질인 패스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대표가 좌장을 맡아 '혁신금융기술의 도입과 CSD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원관희 기자

## 키움증권, 금융 데이터 분석가 양성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 선도기업 선정

키움증권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가 양성 교육에 나선다.

5일 키움증권은 'K-디지털 트레이닝'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준비생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인재 양성 사업이다. 선도기업은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키움증권은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데이

터 분석가 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1기 40명을 선발하고 5개월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기 교육은 하반기에 진행한다.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KIDIS)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해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이론과 실무과정,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작동원리,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 등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원관희 기자